

분류	핵심훈련
제목	RUTC시대의 전도자의 삶 실현(4)- 출 로마 시작
성경	사도행전 1:1-8
일시	2012년 2월 4일
장소	예원 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녹취 자료 ♣

♣ 서론

▶한 20년 전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 전도 받을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도 옮기지 않고 제가 글을 썼다. 얼마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썼다. 시간도 없었고 쓸 때 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글자도 정자로 썼다. 그래서 복사를 30장쯤 해서 가져가서 준 것이다. 그것이 복음편지다. 그런데 그 복음편지가 많은 복음운동을 일으켰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한지 아는가? **올인(All in)**이라고 한다. 우리는 올인을 하라고 하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글을 쓴 사람이 있다. 누가다. 테오빌로에게 보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본문이 많이 이해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누가가 써서 테오빌로에게 보낸 것이다. 굉장하지요?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야 할 게 하나 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진짜로 사탄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온 뭇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올인할 때다. 지금 출 로마라는 것을 놓고 초대교회가 움직인 것이다. 그러면 이상하게 막 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 필요도 없고 굉장히 중요한 것 본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서면 사탄은 그날로 여러분에게서 손을 놓는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따라다닌다. 따라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태국을 가보고 태국복음화가 어렵다고 느꼈다. 태국을 갔는데 어떤 분이 명함을 내놓더라.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명함을 내놓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명함에 보니까 목사더라. 목사인데 사업을 하는 것이다. 나쁠 건 없다. 문제는 뭐냐?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저는 미국 가보고 이제 미국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 한다고 느꼈다. 미국의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된다. 그래서 꼭 미국을 가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아이들을 보내지 말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아니면 미국에 목회하러 가면 안 된다. 왜냐? 영적 문제를 못 이긴다.

▶그리고 사탄이 절대 이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가보니 일본도 그렇고 이번에 대만도 다 그렇다.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굉장히 분위기가 그렇다. 유럽 가보면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 고상함은 마귀 밭이다. 일본 가보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건 마귀 밭이다.

▶그러면 올인하라는 말이 막 설치라는 말이나? 아니다. 오늘 본문을 보라. 이게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가? 막 별나게 하라는 말인가? 아니다. 아주 수준 있게 했다. 여러분은 올인하라고 하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누가는 테오빌로에게 아주 수준 있게 했다. 그런데 생을 걸었다. 그렇지 않은가? 이유가 있다.

(1)20개 이상 - 유대인 학살  
▶조금 있으면 20개 이상 나라에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학살당하게 된다. 심각하지요?

(2)로마 - 전쟁제양  
▶조금 있으면 세계를 정복하고 유대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를 통해서 굉장한 전쟁제양이 일어난다.

(3)후대 - 영원히  
▶그것 때문에 그들의 후대들은 굉장한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다. 이 사실을 보고 초대교회는 올인을 한 것이다. 틀림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더 심각하다. 지금은 로마처럼 전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문화와 가지고 싸다 정복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화, 여러분의 찬양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싸 장악했다. 여러분이 지금 찬양을 하면 적어도 지금 3천 군대에 방송으로 나간다. 이게 어머니 마한 것이다. 그 중에 여러분의 찬양과 메시지를 듣는 램넛들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국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며 승리하는 아이들은 메시지를 잡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 메시지를 놓친 아이들은 전부 흔들리고 있다. 지금 그런데서 흔들린다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 올인할 수밖에 없다. 이 눈을 여러분이 떠야 한다. 오늘 여러분이 이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을 시작하신다. 그러면 오늘 산업선교와 핵심, 전도학 강의가 전부 답이다. 그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다.

♣ 교재 자료 ♣

1.세상과 사람을 쳐다보면 100% 손해 보게 됩니다.

- (1)램넛트 7명의 환경
- (2)초대 교회의 연약(행2:43-47, 행6:1-2)
- (3)기성 교회의 문제
  - ①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 ②큰 성전을 자랑하는 정통 유대인(마9:35-38)
  - ③죽어가는 현장(마9:35-38)

2.절대 속지 않아야 회복됩니다.

- (1)행1:1, 행2:1, 행3:1
- (2)롬16:25, 26, 27

3.기도함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 (1)모든 것, 사람,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큰 역사를 보며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행1:3)
- (2)ONENESS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ONENESS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 ①행1:1(누가, 테오빌로)
  - ②행18:1-4
  - ③롬16:1-23
- (3)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을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 ①사60:1-2
  - ②빌3:1-20
  - ③벧전2:9

(The end)

1.위치

▶그러면 누가가 어떤 위치에 서서 올인을 했느냐? 잘못하면 큰 일 나는 상황이다. 세상과 사람을 쳐다보면 100% 손해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게 되어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여러분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니다.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 전부 100% 실패하게 되어있다.

▶여기에 지금 누가가 올인을 한 것이다.

(1)램넛트 7명

▶렘넌트 7명이 다 같다. 올인이 무슨 말이나? 렘넌트 7명을 보라.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로 올인을 했다. 그러면 노예를 안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축복이 나타났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상관이 없다.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금방 문제가 나버린다. 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여러분에게 갈등이 오면 금방 흔들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놓친다. 여러분은 지금 최고 전도자이고 다 받았다. 오늘 이 말(올인)만 알아들으면 금방 응답이 보인다. 제가 대만 가서도 얘기했는데 전도운동 본부를 임마누엘 부산 안에 두었던 것을 끄집어내는 데 정말로 힘이 들었다. 목사님은 우리교회를 부흥시켜야지 왜 다른 교회 부흥시키느냐는 식이었다. 그래서 본부가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굉장히 흔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것을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구나 싶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뭐라고 고백했는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 것도 부족할 게 없다. 그것이 올인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괜찮다. 여러분은 실컷 은혜 받아놓고 교회에 가서는 또 다 속아버린다.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 부딪치면 또 속아버린다. 그리고 사람 만나 무슨 얘기를 듣고 또 속아버린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누가 편지를 못 보낸다.

(2)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성공한 이유가 바로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께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실(유대인학살, 전쟁재앙, 후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올인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아시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건 마지막 약속인데 그것 말고 예수님이 공생애 마치면서 하신 마지막 말이 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말이 있다. 뭐가? 골고라도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보고 너무 충격이 되어서 막 울었다. 특히 눈물 많은 아줌마들이 막 울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일(학살, 재앙, 후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우습게 보는데 이 복음운동이 안 일어나면 지구상에 영적 문제는 계속 많아진다.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누가 같은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역사는 일어난다.

(3) 기성 교회

▶여러분이 올인이라는 말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성 교회를 보라. 바리새인들을 보라. 서기관들을 보라. 대제사장들을 보라. 이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 그게 바로다.

① 자리

▶지금 현재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은 아무 관심이 없고 자리에만 관심이 있다. 재앙이 막 들이닥치고 오고 있는데 자리에만 관심이 있다.

② 자랑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을 보라. 성전을 크게 지었는데 계속 그것만 자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제일 문제로 보셨다.

③ 현상

▶그리고 현상은 어떤가? 현상은 전부 영적 문제로 죽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올인이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한다. 그건 뭘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시험 들 게 없다. 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뭘 어마어마한 것을 하라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 올인하는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을 보고 제자훈련이라고 한다. 이게 세상 살리는 길이다.

2. 내용

▶올인해야 할 내용이다.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뭐에 올인해야 하는가?

(1) 행1:1, 행2:1, 행3: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다. 여러분이 그냥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 사실(학살, 재앙, 후대)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보라. 이 재앙 속으로 여러분 자녀가 가야 한다. 그러니 정말로 사망 가지고 얘기해줘야 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가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깨닫는 게 벌써 올인을 못한 것이다. 안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전부 기회다.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을 뿐이다.

드디어 온다. 행2: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드디어 세상이 보인다. 행3:1절, 제 구시 기도 시간에... 이게 올인할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데다가 올 재앙을 보라. 아니 당장 여러분 집에 살인강도가 들어오는데 문 잠그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지 않나? 그러면 경찰에 연락하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다.

(2) 롬16:25, 26, 27

▶무슨 내용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롬16:25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축복을 복음 안에서 찾아내라. 그래서 말 안 해도 통하는 사람이 찾아낸다.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안 봐도

보는 사람이 있다. 아니 여러분 교회의 일을 꼭 말로 해야 알아듣는가? 남자가 여자보고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여자가 남자보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낫다.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소통은 말 안 해도 통하는 것이다. 여기에 올인한 사람은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이 온다.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만날 시험에 드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한번 봐보라. 이게 영안이다. 하나님께 40년 동안 고생시킨 게 아니고 광야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게 하셨다. 초대교회가 폼박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회복했다. 이걸 보는 것이다. 이게 올인해야 될 내용이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오래 믿는 사람들도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올인한다. 우리교인들은 겁이 나는지 저한테 상담하러 안 온다. 왜냐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상담하러 오기 때문이다. 아니 상담 같은 것을 해야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올인한다. 심지어는 돈 떼인 것까지 상담하러 온다. 여자 하나가 돈 떼여서 상담하러 왔더니 보니까 현금을 죽어도 안 하는 여자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다. 한 번도 십일조는 죽어 안 하고 건축헌금도 생전에 안 하는 당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떼였느냐? 참 희한하지요? 생전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사기꾼에게 몽땅 다 가져다 갔다. 보면 모르겠느냐?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보고 주느냐? 그래서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영세 전에 감추어진 복음이다.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다. 이 숨겨진 게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데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세세무궁도 록 있을 것,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다.

3. 방법

▶올인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1) 계획 - 역사

▶우리는 올인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일, 사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쉽게 말하면 2번(내용)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그 말이다.

(2) oneness

▶oneness하는 사람이 아니다. oneness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다. oneness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사탄이 문화, 정치, 경제에 oneness 되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산업인보고 한 얘기가 oneness전쟁이다. oneness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난다. 개인 누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인데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걸 알아들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그게 바로 뵈뵈같은 사람들,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뭐가 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것이 롬16장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오늘 한번 잘 생각해보라.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게 제자훈련이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내일 제가 중직자 모임에서 할 메시지 중 하나가, 예수님은 완전히 거꾸로 설명하셨다. 그걸 알아채야 한다. 그게 거꾸로 된 게 아니다. 그게 바로 된 것인데 모르고 있는 것이다.

(3)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일어나는 비전이 있다. 다시 서론을 보라. 이걸(학살, 재앙, 후대) 보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만 보이는 비전이 있다. 그 기도가 방법이다. 우리가 고집을 세우면서 오직 예수가 아니다. 주로 교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도만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본 것이다.

① 사60:1-22

▶그래서 여호와의 빛이 이미 네 위에 임하여 있다. 저 끝에 가면 뭐라고 나오는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어버리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② 빌3:1-20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은 게 빌3장이다. 우리는 어디에 올인해야 될지 모르니까 배설물을 잡고 있다. 그리고 만땅의 것을 붙잡고 고생한다. 그건 이미 우리 것이고 다 끝난 것인데...

③ 뵈뵈2:9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한번 보라. 그래서 뵈뵈2:9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 아, 그래서 이 축복을 주셨구나! 이래가지고 기도가 보여야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 결론 : 성경(죽음)-감사(현신)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성경에 올인한 사람들을 보라. 히11장에 다 나오지만 다 놔두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보라. 이 사람들은 벌써 영적 문제를 알고 올인한 것이다. 다니엘이 조서에 인이 찍힌 것을 알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주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안 것이다. 그러니까 올인한 사람들을 보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부 순교당했는데 눈도 깜짝 안 했다.

▶이러다보면 뭐가 보이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현신이 진짜 현신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디가 다른가? 바나바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들을 누리다가 큰 것을 본 것이다. 아니 큰 게 보이게 된 것이다. 응답만 오는 게 아니라 큰 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땅을 내놓은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뭘 본 것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내놓았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축복을 모르니까 못 본 것이다. 그런데 큰일 났단 말이다. 저 중직자는 내는데 아는 안 내면 어떡하느냐? 큰일 났다. 저게 인기가 올라가면 내 인기는 어떡하느냐? 가만 보니까 저게 잘 나가는데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래가지고 나도 낸다고 한 것이다. 그래놓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걸 다 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돈 가진 사람이 현금을 안 하는 것이다. 돈 가진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돈은 가졌는데 그 다음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안 하는 것이다. 겁이 나서 못 한다. 그러니 집에 오니까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는 것이다. 그걸 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때는 바로 사탄이 물러가라며 이단열차기를 차야 하는데,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래서 속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금을 속인 게 아니라 생령을 속였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 부산의 성전을 딱 한 번만 짓고 끝내자! 저는 올인하는 것이다. 제가 사 입지도 않겠지만 바지까지 다 팔아서 내겠다. 제 바지를 누가 입겠습니까만은, 전에 김치훈 목사에게 한 벌 찼는데 입더라. 싹 다 모아 김치훈 목사에게 팔아서 내겠다. 까짓것, 저는 그 뒤의 것을 보았다. 신앙생활에 올인이라니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아무 데나 올인하는데, 그런 올인이 아니다. 아니 이상하게 제가 기도하다가 소통이라는 말을 썼더니 요새 밖에서 소통이라고 난리다. 제가 먼저 썼기에 다행이지 누가 보면 따라했다고 할 것이다. 그 소통은 다른 말이다. 원래 포럼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데서 시작된 말이다. 원래 포럼이라는 말은 13세기에 나온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축복들을 봐버리면 확실하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누가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보라. 만드시 우리 가문과 우리 민족에게 오는 이 흑암과 영적문제를 막을 것이다! 여러분 한 명이면 된다.

그래서 오늘 기도제목을 하나 잡고 가라. 이 기도를 할 24시 기도조를 조용히 짜라. 급하게 하지 말고 조용조용히 짜라. 한명이면 되니까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교회를 놓고 진짜 24시 올인 기도할조를 짜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 이걸 보고 여러분이 그렇게도 많이 말한 롬16장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목사님이 축도도 안 하고 가느냐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빨리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야 한다. 이번주간에 큰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올인을 하게 해주옵소서. 올바른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b>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b>	
① <a href="http://www.jcking.net">http://www.jcking.net</a> ② <a href="http://www.rutc.com">http://www.rutc.com</a>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0-5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